

북한에서의 고려약에 대한 제도 및 정책 현황

이은희 선임연구원¹, 김동수 조교수^{2*}

1.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2.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Status of North Korea's Regulations and policy on Koryo Medicine

Eunhee Yi¹, Dongsu Kim^{2*}

1. KM Policy Te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used data from traditional medicine laws of North Korea, the prologue of the journal Koryo Medicine, and Rodong News to analyze research trends and technological levels of North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is study analyzed the traditional medicine laws of North Korea, the prologue of the journal Koryo Medicine, and Rodong News to obtain data on policy systems and research trend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role of Koryo medicine is clearly defined by law as a medical care provider, pharmaceutical productio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herbal preservation. Under Kim Jong Un, Koryo medicine policies have emphasized the commercialization,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Koryo medicine extracts. The results show North Korea's emphasis on using Koryo medicine and increasing medical independence through Koryo medicine.

Keywords: North Korea, Koryo Medicine, Regulation, Law, Policy

서론

북한은 김일성 정권 시기부터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 고려의학을 높은 비중으로 활용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고려약은 고려의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이용되었다. 김동수¹⁾는 해방 후부터 현재

Correspondence: 김동수(Dongsu Kim)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 120-9, Dongshindae-gil, Naju-si, Jeollanam-do, Rep. of Korea

Tel: +82-61-330-3528, E-mail: dskim20@dsu.ac.kr

Received 2021-06-01, revised 2021-07-09, accepted 2021-07-12, available online 2021-07-13

doi:10.22674/KHMI-9-2-1



까지 고려의학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정책을 정리하면서 고려의학의 주요 정책 방향 3가지 중 하나로 ‘고려약 생산량 향상’을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약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은 최근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¹⁾ 북한의 고려의학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건인 ‘동의학을 발전시킬데 대하여’²⁾ 내에도 고려의학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로 서양의약품에 비해 고려약에 좋은 약이 많다는 점을 들었으며, 발전 방안 중 하나로 역시 고려약 재배량 향상을 제시하였다.

북한 고려의학 정책에서 고려약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려약은 남북 전통의학 협력의 핵심 아이템으로 논의되어 왔다. 2002년 남북의 전통의학 관련 협회는 고려의학 협력에 대한 상호 의향서를 교환하였는데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한약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상호협력’이 제시되었다.³⁾ 또한 2007년에는 고려약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남북정상회담 안건으로까지 논의되었다.³⁾

이처럼 고려약은 남북 간 전통의학 협력의 중요한 아이템이지만 남한에서 북한의 고려약 관련 현황을 연구한 사례는 없다. 특히 현재 북한 고려약 관련된 규제 제도와 고려약에 대한 육성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남북 전통의학 협력시 고려약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려약 관련 북한 법률, 학술저널, 언론 등을 통해 고려약 분야의 정책·제도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남북 전통의학 교류시 북한의 고려약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저자가 주역할로 참여한 「한국한의학연구원.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 정책연구 2020-1호」 내용 중 일부를 재가공한 내용임.

본론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려약에 대한 규제 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관련된 북한 법률을 분석하였다. 참고한 북한의 법률은 아래와 같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 2000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93호로 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로자보호법 -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7호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초법 - 주체98(2009)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호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 - 주체102(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4호로 수정보충



둘째 고려약에 대한 최신 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려의학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고 여겨지는 「고려의학」 저널의 서문을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고려의학」 저널은 1년에 4권이 출간되며 1권 당 60여 편의 학술논문이 실려 있다. 그리고 저널의 서문에는 지난 시기 권력 수반의 고려의학에 대한 방침이나 연설, 또는 최근 고려의학의 성과나 현황 그리고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서문은 1권당 2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통 정책 성과나 방향을 다룬 서문 1개와 예전 지도자의 사례, 유훈 등이 담긴 서문 1개가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는 2016년 1권부터 2019년 2권까지 총 28개의 서문 중 고려의학의 정책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최신 고려약 관련 정책과 더불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도와 2018년도 노동신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최근 중요한 성과나 사건에 대한 소식 뿐만 아니라 전 지도자의 일화,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 각 기관 탐방, 특정 인물의 본받을 만한 경험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 시기의 고려약에 대한 현황과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근 소식과 관련된 내용만 검토하였다. 분석 방법은 2017-2018년도 노동신문 중 '고려'를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하고 살펴본 후 실제 기사 내용이 고려약과 관련된 기사일 경우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인 '고려약 성과', '고려약 공장의 생산 설비 및 생산 공정', '고려약 생산량', '기타'에 따라 기사를 분류하였다. 위의 자료들 외에 북한 고려약 관련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2. 연구 결과

1) 고려의학 관련 법률 - 고려약을 중심으로

고려의학은 북한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 제7조에는 북한 보건의료에서 고려의학의 역할을 단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고려 의학을 활용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신의학과 배합하여야 하며, 또한 치료사업에 고려 의학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아래에서 고려약은 의료 제공의 측면, 의약품 생산·제공의 측면, 과학기술 발전의 측면, 약초 보호의 측면에서, 해당 법률에 포함되어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Table 1).

Table 1. 북한 법률내에 포함된 고려약 관련 조항

분야	법률	내용
의약품 생산·제공	인민보건법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제37조(약초의 재배와 채취)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려약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고려약생산을 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자원을 보호증식하며 그 재배와 채취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약초를 다른 나라에 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초법	약초법 전체
	의약품 관리법	제1장 의약품관리법의 기본 제2조 의약품생산을 늘이는것은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신약과 고려약의 생산을 정상화하며 의약품의 가치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도록 한다. 제3장 의약품검정

분야	법률	내용
		제19조 의약품검정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3. 수매공급하는 고려약제 제4장 의약품 보관과 공급 제31조 독약, 극약, 마약, 정유함유고려약, 방사성의약품, 방사성동위원소 같은 의약품은 정해진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한다.
	수의방역법	제3장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 제23조 공민은 수의화학약품, 수의고려약품 같은 일반수의약품을 사용설명서에 따라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의 병치료에 리용할수 있다.
과학기술 발전	인민보건법	제4장 주제적인 의학과학기술 제30조(고려의학과 민간료법의 연구) 보건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은 고려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고려의학과 민간료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약초보호	약초법	제1장 약초법의 기본 제1조(약초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초법은 약초의 재배, 약초자원의 조성하고 보호, 약초의 수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약초자원을 적극 늘이고 고려약생산을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4조(약초자원의 조성, 보호원칙) 약초자원의 조성하고 보호는 산에 약초를 심으며 자연적으로 자라는 약초를 관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약초자원의 조성하고 보호관리체계를 세우며 약초 한뿌리를 캐고 두뿌리, 세뿌리를 심는 원칙에서 약초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도록 한다. 제3장 약초자원의 조성하고 보호 제22조-제36조

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2000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93호로 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주체102(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7호로 수정 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초법-주체98(2009)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호로 수정 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주체102(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4호로 수정보충

2) 고려약 제도

(1) 제제 의약품

북한에서 고려약 제제 의약품은 국가 제도에 의해 등록된다. 고려약 제제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건성의 허가에 의해 관련 기관에서 임상실험이 이루어진다. 생산 가능여부가 확인되고 나면 국가약품 검사기관에서 고려약 제제 의약품의 성분에 대한 실험이 실시된다. 이후에 국가 임상제약위원회



에서 약의 약효와 약역학 과정에 대한 분석, 반응 검토를 하고 자료를 보건성의 표준 평가 회의에 제출한다. 의약품에 대한 허가는 중앙품질관리기관이 담당하며 국가 표준은 보건성에 의해 확정된다.⁴⁾ 일반적으로 북한의 의약품 생산·검정·보관과 공급·이용에 관한 사항은 ‘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⁵⁾ ‘의약품관리법’에 의하면 의약품은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을 세워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내각에 의해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한다.⁶⁾ 그리고 의약품은 약전과 의약품 규격에 맞게 생산해야 한다.⁷⁾ 약전은 보건성의 약전위원회에서 출간하며 고려약 제제 의약품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관련 법규와 조제 과정이 정의되어 있다.⁸⁾ 약전에 포함된 고려약에 관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북한 약전 내에 포함된 한약 관련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약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지표 설정 • 약초 처리 방법(불순물 제거, 절단, 분쇄, 제분, 침지, 데치기, 끓이기, 찌기, 볶기 등)
한약 제조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특성 • 품질과 약효 유지 방법 • 생산 방법(필요 장비, 공장의 위생적 환경 등)
제품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세부정보 • 제품간 약학·생물학적 균일성 • 입자크기
제조약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말, 피부 테이프, 캡슐, 연고, 타페텀(tapetum), 현탁액, 주사액, 좌약, 차, 탕약, 팅크제(tincture), 과립, 엷(taffy), 추출물 등
약초 검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성분·형광물질·순도 검사, 추출물과 기름 분석, 탄닌 성분의 양 검사, 톨루올 증류, 부분 및 입자 크기 검사, 허용오차 방식 등
약초 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400 종
전통 조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00개의 전통 조제법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b. Traditional Medicine(TRM) System in DPRK. 2014.

생산된 고려약 제제 의약품은 질을 보장하고 약물 사고를 막기 위해 검정을 거친다.⁹⁾ 의약품 검정 기준은 북한 국내산은 북한의 약전 또는 의약품 규격을 따라야 하며, 수입산은 해당 나라의 약전이나 의약품 규격에 의한다.¹⁰⁾ 의약품 검정 대상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북한의 의약품 검정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격을 새로 제정하기 위하여 만든 의약품 2. 생산, 공급, 판매하는 의약품 3. 수매공급하는 고려약제 4. 다른 나라로 내보내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의약품 5. 약물사고와 그 밖의 사유로 조사 심의하는 의약품 6. 수요자와 공급자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의약품 7. 그 밖에 질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제 19조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생산된 의약품은 보건성의 약품국과 지역 약품기관을 통해 모든 병원과 약국에 공급된다. 모든 의료 기관에서 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⁸⁾ 의약품관리법 제38조에 의하면 의약품 중 국가에서 정한 의약품(일반판매지표)은 처방전에 따라 공급되며, 일반판매지표로 정하지 않은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된다. 또한 의약품관리법 제41조는 국민이 대중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중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일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약분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개별 병원에서 약을 생산하는 제제실을 두고 의약품을 만들고 있다.¹¹⁾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은 조제한 의료기관에서만 이용되며, 다른 기관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¹²⁾ 제제실에서는 주로 고려의학에 이론적 기반을 둔 이른바 고려약을 제조하고, 식염수 등을 직접 만들어서 의료인들이 사용하게 공급한다.¹¹⁾

북한에서는 약집, 알약, 물약, 싸락약(과립제), 가루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많은 고려약 제제 의약품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려약 제제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은 주로 고려의학연구원, 평양의과대학 등에서 개발하지만 일반 병원이나 진료소에서도 종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에 의하면 평안북도인민병원의 한 보건일군이 '방울알약'이란 제형 생산법을 개발하였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였다.¹³⁾ 또한 공장내에도 고려약 제제 의약품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소를 두기도 한다. 고려약 제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공장인 강계고려약가공공장 내에는 고려약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험실, 분석실,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고 실험설비들과 각종 시약들도 보장되어 있다.¹⁴⁾ 그리고 여러 효과가 좋은 고려약들은 특허증서, 첨단기술제품 등록증서를 받는다고 하여 개발에 따른 개발자나 기관이 경제적 또는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약초

북한에서 고려약의 재료로 쓰이는 한약재를 통상 '약초'라 부른다. 약초의 정의는 '약초에는 재배하였거나 자연적으로 자라 약재로 쓰이는 식물의 뿌리, 껍질, 꽃, 잎, 열매 같은 것'이다.¹⁵⁾ 북한은 약초법 내에 약초의 재배, 약초자원의 조성고 보호, 수매, 지도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¹⁶⁾ 약초법은 제1조 약초법의 사명을 통해 '약초자원을 적극 늘리고 고려약 생산을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어 곧 법령 전체가 고려약과 관련된다. 약초법은 제1장 약초법의 기본, 제2장 약초의 재배, 제3장 약초자원의 조성고 보호, 제4장 약초의 수매, 제5장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계획기관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재배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약초 보호를 지도하는 기관인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약초 생산을 지도하는 기관인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이 함께 조사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고려약생산관리기관의 관리하에 기관, 기업소, 단체가 약초를 재배한다.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은 계획 수립과 함께 단위에서 계획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정치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에 의하면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이 단위 고려약생산공장에 대한 정치사업의 효과로 2017년 고려약 생산이 2016년에 비해 1.3배 향상되었다고 하였다.¹⁶⁾ 자세한 약초 재배와 보호에 관한 사항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약초법」에 의한 약초관리 분야에 따른 기관별 역할

분야	기관	역할
재배 계획	국가계획기관	· 국가 수요, 재배 조건 타산하여 재배 계획 수립 및 시달
재배	중앙국토환경보호 지도기관, 중앙고려약생산 지도기관	· 다른 나라 약초 종자 재배 승인
	고려약생산관리기관, 농업지도기관, 통계기관	· 약초생산량을 품종별로 파악
	약초관리기업소, 협동농장	· 전문재배
	기관, 기업소, 단체	· 균중재배 · 약초의 품종배치, 영농공정별 작업 진행, 피해막이 대책 수립 · 약초 생산량을 농업지도기관, 통계기관에 보고
약초자원의 조성 과 보호	내각	· 약초자원보호구 설정
	중앙국토환경보호 기관	· 조사자료 수집 · 약초자원 조성계획 시달, 우리나라 특이한 약초원종 보호증식, 허가를 받아야 채취 가능한 약초 선정
	중앙고려약생산지도 기관	· 조사자료 수집 · 허가를 받아야 채취 가능한 약초 선정 · 대용할 수 있는 약초 선정
	지방국토환경보호 기관	· (약초관리기업소로부터) 약초채취허가 신청 접수
	고려약생산관리 기관	· 약초자원조성계획 시달, 약초자원 소개·선진, 우리나라 특이한 약초원종 보호증식
	약초자원조사기관과 해당 기관	· 약초자원 조사
	약초관리기업소	·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약초채취허가 신청 접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 약초자원조성계획 실행
약초의 수매	국가계획기관, 고려약생산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	· 약초수매계획 수립 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 (기관, 기업소, 단체가 약초수매사업에 참가)
	약초관리기업소	· 약초수매사업 수행, 수매받은 약초의 보관관리·공급
지도통제	내각	· 통일적인 지도
	중앙국토환경보호 지도기관,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	· 약초부문 사업 지도
종자	고려약생산관리기관	· 약초종자생산기지를 꾸려 우량품종의 약초종자 생산·공급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초법-주체98(2009)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호로 수정 보충

북한에서 약초는 약초법에 의해 유통되기도 하지만 의료기관 내에 직접 약초를 키워 자체 수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에는 '북창군 인포청년탄광병원'에서 자체 생산한 약초를 활용한 사례를 우수한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¹⁷⁾

3) 김정은 정권의 고려약 정책

(1) 김정은 정권의 고려의학 정책

김정은 정권은 예전에 비해 서양의학을 좀 더 중요시 여긴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이외에 고려의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고려의학」 저널 서문과 노동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결정으로 언급되는 것은 2013년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이다. 이때 김정은은 고려 의학을 과학화하고 신의학을 옹기 배합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현대의학발전추세에 맞게 앞선 진단, 치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신의학과 고려 의학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완비하고 구급의료봉사를 비롯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합니다.”¹⁸⁾

2016년 5월 6-7일간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에서도 고려 의학에 대해 유사한 언급을 하였다. 김정은은 대회의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파트내 ‘문명강국건설’ 항목에 보건의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명강국건설’ 항목 내 보건의료 관련 계획은 ①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의 관철, ② 의료봉사의 질 개선, ③ 의학과과학기술 발전, ④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 보상사업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고려 의학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부분은 ② 의료봉사의 질 개선을 위해 ‘신의학과 고려 의학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③ 의학과과학기술 발전의 하나로 ‘고려 의학을 과학화’하도록 한 내용이다(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 이 두 가지 고려 의학에 대한 방침은 이후에도 계속 언급되며, 고려약 생산 등 정책 각론의 중심 기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고려의학」 저널 내 서문 분석을 통한 고려약 정책

김정은 시기에 북한의 고려 의학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실린 「고려 의학」 저널 서문과 노동신문에 실린 고려 의학 관련 정보를 통해 최근 북한 고려 의학의 정책 방향과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고려 의학」 저널 내 서문에는 고려 약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항암 약 개발 성과를 대대적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정책 방향으로는 고려 약의 엑스제제 제품화, 규격화, 공업화와 함께 이를 통해 이루어질 질 향상, 생산성 향상 등이 중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Table 5).

Table 5. 2016-2019 「고려 의학」 저널 내 서문 제목 및 주요 내용

연도	권	서문 제목	주요 내용
2016	1	올해 고려 의료봉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자.	· 성과 - 하늘타리주사약 비롯 항암약 개발 - 고려약 엑스화 및 규격화 실현 · 정책방향 - 고려약생산 과학화, 공업화, 질 향상
2016	4	신의학과 고려 의학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	· 고려 의학과 신의학 배합 방법 - 고려약 엑스화, 효능높은 고려약 개발

연도	권	서문 제목	주요 내용
2017	1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올해 고려 의학의 과학화, 현대화에서 새로운 혁명적 양상을 일으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의학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암약 개발, 고려약의 엑스화·규격화 · 고려의학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치료약 개발, 비만증 등 질환치료 사업, 고려약제제화 사업 등
2018	1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적인 총공세로 올해 고려의료봉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의학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암약 개발, 고려약의 엑스화·규격화 · 고려의학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약생산의 주체적인 생산공정확립,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
2018	3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고려의료 봉사사업에서 비약을 일으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의학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치성 질환에 대한 비약물성치료 방법 정립 - 고려약 엑스화, 규격화 실현 · 고려의학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약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및 생산 향상
2019	1	고려의학을 과학화하며 고려의료 봉사수준을 높여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의학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항암약 조성설계, 제조설계, 기초연구, 임상검토 - 황금비만알약, 흉뇌백내장눈약, 약산미나리제제 등 효과적인 약물 개발 · 고려의학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반응에 의한 체질분류, 고려 암 치료약 개발 - 고려약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및 생산 향상

자료: 「고려의학」 저널 2016년 1권-2019년 2권의 내용을 재구성함.

(3) 노동신문 분석을 통한 고려약 정책

2017-2018년 노동신문 분석 결과 고려약과 관련된 기사는 총 46건이었다. 이 중 연구를 통해 새로운 고려약을 개발한 성과에 대한 기사는 14건이었다. 천연 간 치료약인 레베린 주사약 개발¹⁹⁾, 독사향 개발을 통한 뇌혈전, 뇌진탕 등에 대한 치료 예방²⁰⁾, 실리마린을 적게 쓰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실리아 무련보간단알약 개발²¹⁾ 등이 있다.

고려약 공장의 생산 설비 또는 생산 공정과 관련한 기사는 13건이었다. 고려약재 초미세 분쇄기술 개발을 통해, 체내 흡수율과 효능을 향상 시키는 것에 관한 내용²²⁾, 북한식 고려약 감압농축기 개발을 통해 고려약 엑스의 질을 높이고, 농축시간을 종전 대비 1.5배 줄이는 것에 관한 내용^{23,24)} 북한 내 GMP 화 진행 중²⁵⁾이 있다.

고려약 제제와 약초의 생산량과 관련한 기사는 10건이었다. 평천 고려약 공장 연간 생산액 계획 완수²⁶⁾ 우시고려약공장, 연간 고려약 생산 계획을 앞당겨 수행²⁷⁾ 등의 기사가 해당했다. 마지막으로 사리원 영예군인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수입 자재를 국산으로 대신하고 여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조할 것²⁸⁾, 개성고려인삼 가공공장 창립 기념 보고회²⁹⁾ 등과 같은 기타 기사는 9건이었다.

결론

연구진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북한의 고려약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은 고려의학의 주제성 강조, 신의학과와의 배합 등을 오래전부터 중요시 여겨왔으며 이는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특히, 중점 연구분야인 고려약 관련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함암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고려약 함암제는 의학연구원 중앙연구소에서도 암을 극복하기 위한 중점 연구분야로³⁰⁾ 고려약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약 생산 증대를 위해 보건성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량 달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새로운 생산설비를 개발하거나 공장을 새로 짓는 등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약품 생산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생산, 포장해야 하며, 세계 제약공업발전 추세를 잘 알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노력하고 있다.³¹⁾

둘째, 자립의 강조이다. 북한의 경제 약화와 제재 등으로 인해 ‘국산화 정책’은 김정은 정권 경제정책의 대표적인 특징이다.³²⁾ 고려의학에 대해서도 국산 고려약을 중심으로 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시기 고려약에 비해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비약물성 치료기술도 중점 연구분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인력의 노력만으로 제공될 수 있는 비약물성 치료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서양의약품 뿐만 아니라 고려약도 충분히 제공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 국산화와는 별개로 북한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설 장비가 비교적 많이 요구되는 먼거리 의료체계에 대해서 시설이 부족한 곳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관 단위의 자력갱생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이전 정권의 정책 방향 연장 및 경제 고립에 따른 자립 강조로 인해 정책적으로 고려약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약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사항은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력 증대와 고려약의 질적 향상이다. 이러한 고려약에 대한 정책 방향은 향후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의 접근방안 마련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동수. 북한 고려의학의 제도·정책 역사. 한약정보연구회지 2021;9(1):45.
2. ‘동의학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보건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2-27.
3. 대한한 의사협회 내부자료. 남북 민족의학 교류협력사업. 2016.
4. 엄주현. 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정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2020.
5. World Health Organization-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The Work of WHO in the South-East Asia Region-2015 Report of the Regional Director. 2016.
6. 이세정, 손희두, 이상영.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법제통합 방안. 통일부, 한국법제연구원. 2011:98-105.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제 9 조, 제 10 조. 1998-12-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51 호로 수정보충.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제 13 조. 1998-12-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51 호로 수정보충.



9. World Health Organization-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Traditional Medicine(TRM) System in DPRK. 2014.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제 17 조. 1998-12-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51 호로 수정보충.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제 20 조. 1998-12-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51 호로 수정보충.
12. 조성은 외 10 인.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36.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제 40 조. 1998-12-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51 호로 수정보충.
14. 호평받는 고려약들이 개발되기까지-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노동신문. 2018-01-23.
15. 자기단위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강계고려약가공공장 부문당위원회에서. 노동신문. 2018-03-07.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초법-주체 98. 제 2 조. 2009 년 6 월 30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0 호로 수정 보충
17. 고려약 생산 1.3 배 장성. 노동신문. 2018-01-20.
18. 탄부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쳐가는 열정-북창군 인포청년탄광병원을 찾아서. 노동신문. 2017-11-08.
19. 조선노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주체 105(2016)년 5 월 6-7 일.
20. 효능높은 천연간치료약 레베린주사약. 노동신문. 2017-03-12.
21. 룩사향. 노동신문. 2017-11-15.
22. 약리효과가 좋은 실리마린. 노동신문. 2018-02-18.
23.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강계의학대학 첨단기술제품개발 및 교류소 일군들과 연구사들. 노동신문. 2017-02-11.
24. 우리식의 제약용감압농축기 개발-강계의학대학에서. 노동신문. 2018-01-23.
25.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강계의학대학에서. 노동신문. 2018-10-24.
26.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GMP. 노동신문. 2018-03-04.
27. 생산정상화에 큰 힘을-평천고려약공장에서. 노동신문. 2018-07-15.
28. 의학과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의의깊은 계기. 노동신문. 2018-12-08.
29.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워야 자강력이 커진다.-사리원영예군인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노동신문. 2017-05-31.
30.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창립 60 뚝 기념보고회 진행. 노동신문. 2018-12-03.
31. 첫 걸음부터 기세가 좋다-의학연구원에서. 노동신문. 2018-01-23.
32. 김정은, 평양제약공장 현지지도. 노동신문. 2018-01-25.
33. 김은옥,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2019;8.

부록

2017-2018 노동신문에 포함된 고려약 관련 기사

일자	제목	주요 내용
2017.1.30.	새로운 천연건강식품 개발	◦기능성영양식품, 프룩탄영양액 개발
2017.2.11.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강계 의학대학 첨단기술제품개발 및 교류소 일군들과 연구사들	◦고려약제조미세분쇄기술 개발, 수자조종식진공제약설비 제작
2017.2.28.	과학기술로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을 열어간다	◦희천고려약공장 시설 확충 -2,150여㎡ 생산건물 건립 및 농축기, 추출기 등 80여종 현대 제약설비 국산화
2017.3.7.	국산화의 열풍이 안아온 자랑찬 성과-제32차 평양시과학기술축전 진행	◦철도성 산하단위 기사, 난치성창상 치료 광물성고려약 개발
2017.3.12.	효능높은 천연간치료약 레베린주사약	◦조선인민군 송철소속부대산하 종합식료 가공공장병원에서 레베린주사약 개발
2017.3.26.	천연간치료제-실리아무렌보간단알약	◦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 연구사들, 얼룩영경퀴알매에서 얻은 실리마린과 황경피나무잎플라보노이드, 황금플라보노이드가 주성분으로 개발
2017.5.31.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워야 자강력이 커진다.-사리원영예군인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수입 자재를 국산으로 대신하고, 여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조
2017.6.22.	효능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강계고려약공장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약 개발을 위한 경제조직사업 기획 -고려약생산에 컴퓨터에 의한 종합조종체계 완성, 초림계추출공정 꾸림. -작업반, 유효성분 추출 기술 연구완성 및 공업화 실현 -물약작업반, 랭각식려과장치 갖추어 엑스생산공정의 자동조종체계 실현 -알약작업반, 자동온도조종장치 설치하여 전력소비 효율화
2017.7.4.	의료봉사의 질제고와 자질향상-서성구역인민병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에 고려약, 고려치료를 적극 도입, 고려치료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을 중점에 둬.
2017.7.18.	년간 고려약생산계획 완수, 새 제품 개발사업 활발-평천고려약공장에서	◦증기식알퐁회수장치 제작 등을 통해 고려약 엑스생산 1.5배 증가 ◦록사향, 소체환 등 고려약 질 향상 ◦올해 익모초협심증단알약, 쓴부루(치커리)있간염알약, 비아환 등 새 제품 생산
2017.7.19.	제품의 질제고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에서	◦평천고려약공장,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 생산공정들에 대한 관리체계 인증
2017.9.16.	새로운 고려치료방법 연구도입-고려의학연구원에서	◦침구연구소 회복치료연구실, 무릎관절활액막염 치료 성과 -전기온수자극료법과 고려외용약으로 치료
2017.10.20.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계속 혁신, 계속전진	◦고려약생산관리국 아래 200여개 고려약공장들이 연간 계획 완수



일자	제목	주요 내용
2017.10.29.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의학과학연구기관들에서	◦고려의학연구원과 김만유병원간 협동연구 -고려주사약 제제법 교육
2017.11.5.	록사향	◦록사향 개발 -뇌혈전, 뇌진탕과 그 후유증, 심근장애, 기억력감퇴, 잠장애, 가스중독으로 인한 머리아픔 등에 대한 치료와 예방
2017.11.21.	비약하는 시대는 이런 인재들을 부른다.-선교구역 남신종합진료소 의사 장미란 동무의 연구성과를 놓고	◦홍역 치료제 ‘우유허비루스물약’ 개발
2017.12.15.	나라의 보건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의의깊은 한해-올해 보건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두고	◦고려약생산부문 계획 달성 ◦고려의학연구원 ‘탁산항암주사약에 의한 진행기위암치료의 임상적연구’, ‘요추추간판탈출증때 전기침치료방법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 등 수십건의 연구성과
2017.12.18.	백수십건의 의학과학기술성과 이룩-보건성산하 의학연구기관들	◦고려의학연구원 마황비만알약과 침치료 배합하여 비만증 치료 개발 성과
2018.1.10.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보건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염주고려약공장, 덕천고려약공장 비롯 여러 고려약공장들의 생산공정 GMP화 실현
2018.1.10.	첫 걸음부터 기세가 좋다.-의학연구원에서	◦중앙연구소에서 항암작용이 있는 고려약재 연구할 계획
2018.1.20.	고려약생산 1.3배 장성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에서 고려약공장에 대한 정치사업 벌인 결과 고려약 생산이 향상.
2018.1.23.	우리식의 제약용감압농축기 개발-강계의학대학에서	◦강계의학대학 첨단기술제품개발교류소에서 우리 식의 고려약가공설비인 제약용감압농축기를 개발도입
2018.1.25.	김정은, 평양제약공장 현지지도	◦평양제약공장내 고려약직장 돌아봄.
2018.2.18.	약리효과가 좋은 실리마린	◦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 간염치료 및 간보호제 개발
2018.2.21.	효능높은 약품개발에 박차를-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삼향우황청심교감약, 생물활성인삼수액 등 20여종의 고려약을 연구개발하여 고려약의 엑스화, 과학화실현에도 적극 이바지
2018.3.2.	로력과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생산공정 확립	◦신양고려약공장에서 로력과 전기절약형생산공정 확립하여 원가 절감
2018.3.4.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GMP	◦북한내에 정성제약종합공장, 강계고려약가공공장, 희천고려약공장, 평천고려약공장 비롯 여러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의 GMP화 실현
2018.3.6.	201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위들에 공동순회우승기 수여	◦장수고려약공장, 강계고려약공장, 경성영예군인주사약공장이 공동순회우승기 수여
2018.4.20.	전향단위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는 비결-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태양절전을 통해 상반기 계획 완수 -4월10일까지 상반기 계획의 121% 완수
2018.4.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설비관리분야 모범단위에 평양제약공장 고려약직장, 평선고려약공장 26호모범기대영예상 수여



일자	제목	주요 내용
2018.5.19.	기술학습의 날 운영과 자질향상-함경남도소아병원에서	◦기술학습 중 임상실천에서 고려약과 고려치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고려치료의 비중을 높이는데 필요한 문제들을 반영
2018.5.19.	효능높은 인삼수액이 나오기까지-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 첨단기술제품개발실 연구사들	◦특이적 및 비특이적 면역기능에 모두 자극작용을 나타내는 인삼수액 개발
2018.6.4.	과학기술을 앞세워 고려약생산에서 계속 혁신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에서 증산을 위한 노력
2018.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수요
2018.7.15.	생산정상화에 큰 힘을-평천고려약공장에서	◦7월10일까지 연간 생산액계획 완수
2018.8.3.	자체의 약초원료기지를 꾸려놓은 보람-북창고려약공장에서	◦고려약 생산에 필요한 원료기지 건설 계획
2018.8.5.	비물질문화유산보호와 고려의학치료	◦지금까지 고려의학연구부문 여러 과학자들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등록증 수여 받음.
2018.9.11.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대흥고려약공장, 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
2018.10.4.	고려의학고전열람프로그램개발	◦고려의학연구원, 고려의학고전 '향약집성방'열람프로그램 개발 -1만 4200여건의 검색자료도 구축하여, 병증, 고려약처방, 침뜸처방, 단방(민간료법), 개별고려약, 침혈 등 필요한 항목 선택하여 열람.
2018.10.24.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강계의 학대학에서	◦고려약 엑스화 개선 설비인 감압농축기 새로 개발
2018.10.27.	의학과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연구성과 이룩-의학연구원에서	◦의학연구원, 고려약과 신약을 배합한 복방감기약이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음.
2018.11.24.	평양제약공장재건현대화공사 적극 추진	◦고려약직장 등 십여개 대상을 새로 일떠세우거나 개선보수
2018.12.3.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로력절약형, 에너르기 절약형의 새로운 인삼가공기지들을 꾸릴 것을 결의
2018.12.4.	고려약생산계획을 넘쳐 수행	◦우시고려약공장, 년간 고려약생산계획 앞당겨 수행
2018.12.8.	의학과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의의깊은 계기	◦'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8'에서 고려의학 부문 전시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 생산량이 몇배에 달하는 조직배양법 재배 약초 -강계고려약가공공장, 고려약의 엑스화 높은 수준
2018.12.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전(제8판)이 나오기까지-보건부문의 일군들과 교육자, 과학자들	◦1920종의 의약품이 실린 약전내에 고려약제제와 고려약제가 실림.

